



##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제안 답변

<b>건의자</b>	이 * *	<b>연락처</b>	010-****-****  *****@****
<b>제 목</b>	지하철 노선 안내방법 개선과 활용		
<b>건의내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람이 붐빌 때 객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안내표시기 역명이 보이지 않음, ⇒ 좌석 상단 천장과 벽 연결부위에 네온사인이나 전자식 역명 현시</li> <li>○ 추가 설치된 시설물에 텍스트 광고 유치</li> </ul>		
<b>관련법령</b>	○ 없음		
<b>담당부서</b>	차량운영처 부대사업처	<b>담당자</b>	박남철 과장(6311-9664) 하현희 주임(6311-9307)
<b>검토의견</b>	○ <b>현 황</b> (호선별 취부위치)		
	<b>구 분</b>	<b>1 ~ 4호선</b>	<b>5 ~ 8호선 (2호선 신조차량 포함)</b>
	<b>취부위치</b>	객실 중앙 천장	출입문 상단
	<b>관련사진</b>	 [ 기존차량(2호선) ]	 [ 신조차량(2호선) ]
○ <b>검토결과</b>			
[설치 측면 : 차량운영처]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승객 혼잡시에는 개선(안) 또한 설치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, 비혼잡시에도 객실 손잡이와 선반 등 지장물로 시야를 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</li> <li>- 차량의 보조전원장치 용량관계로 객실안내표시기 추가 설치하는 불가능하며,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객실 손잡이가 없는 출입문 상단이 적정위치로 판단됨(* 현재 5~8호선 및 2호선 신조차량에 설치된 부분)</li> </ul>			
[광고 측면 : 부대사업처]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정상단과 벽 연결부위는 현재 광고면(모서리광고)로 활용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주목도 하락 등으로 광고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, 해당 위치에 전자표시판을 설치할 경우, 눈부심 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</li> </ul>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향후계획</b></li> <li>- 현재 신형 차량의 경우 객실 안내 표시기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고 있으며(2호선 신조차량 기적용 중),</li> <li>- 역 도착시 앱 푸시알림을 해주는 열차 역 도착 모바일 앱(“또타”)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도착역 안내를 보완하고 있음(* 푸시 알림 서비스의 경우 2,3,4호선 시범운영 중이며, 서비스 평가후 1~8호선 확대 적용 예정임)</li> <li>- 승강장안전문(PSD)과 관련, 승강장안전문의 일부가 광고판으로 구성 되어 승객 시야를 가림에 따라, 비상탈출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비상문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('19.4월 완료예정/민자유치 24역 제외)</li> </ul>
<p><b>조치 결과</b></p>	<p><b>수용곤란</b></p>